

현안과 과제

■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EU 지역은 FTA가 발효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수출 비중과 무역수지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반면, 발효시기와 양허 수준 등 유사한 FTA를 체결한 대미 수출 비중과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히 늘어나 두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FTA를 전후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성과를 경쟁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EU, 한미 FTA 성과 비교 평가

(분석 방법) EU와 미국 시장에서 FTA 발효 전후 수출경쟁력과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분석시기는 발효 이전(2009~2011년), 발효 이후(2011~2014년)로 한다. 수출경쟁력 부문은 CA지수(산업별비교우위지수)를, 시장점유율은 수입침투율을 산출하여 FTA 발효 전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수출경합국인 중국과 일본의 CA지수, 수입침투율을 각각 산출하여 FTA 발효 전후 성과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경쟁력 변화) 첫째, 한-EU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對中 경쟁력은 개선, 對日 경쟁력은 소폭 약화되었다.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8대 주력품목 중 5개 품목의 CA지수가 상승했고, 비교우위 품목도 1개 늘어나 우리 주력제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경합국가와 비교해 볼 때,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CA지수가 중국에 비해 개선된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對中 상대적 우위가 커졌다. 반면 EU 시장에서 對日 경쟁열위 품목은 1개 늘어나 對日 경쟁력은 소폭 약화되었다. 특히 對EU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IT 제품 경쟁력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이후 경쟁력도 일본, 중국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주력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되었고, 특히 對中 경쟁력은 약화, 對日 경쟁력은 개선되었다.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6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4개 품목의 CA지수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국가와 비교해볼 때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對中 경쟁열위 품목은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對中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한편 CA지수가 일본에 비해 개선된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對日 상대적 우위는 커졌다. 한편, 對美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IT제품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시장점유율 변화) 셋째,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났고,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의 수입침투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상대

적인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EU 시장에서 수입침투율 격차가 좁혀진 분야는 중국 및 일본 모두 9개 분야 중 6개로 나타났다. IT 부문의 경우 EU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침투율은 3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이 하락했다. **넷째,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가운데, 일본과 점유율 격차는 좁혀졌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났다. 한편 일본과 수입침투율 격차가 개선된 품목은 8개 분야 중 5개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 격차가 좁혀진 분야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부문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은 3국 중 수입침투율이 가장 낮고,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도 크게 하락했다.

(종합평가) FTA 발효 이후 EU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주력품목과 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분적으로 EU 시장에서는 對日 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는 對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시장보다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성과 종합 비교>

구 분	분석 대상	
	EU시장(한-EU FTA)	미국시장(한미 FTA)
수출경쟁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전반적으로 개선 - 對中 경쟁력 개선 - 對日 경쟁력 소폭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전반적으로 개선 - 對中 경쟁력 약화 - 對日 경쟁력 개선
시장점유율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 전반적으로 개선 - 일본,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모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 전반적으로 개선 -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 축소 -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우선, FTA를 통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의 개선세가 좀더 빨라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TA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EU 시장에서 對日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브랜드가치 제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對中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기술발전 방향과 경쟁력, 주력 제품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부진한 만큼, IT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엔저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공정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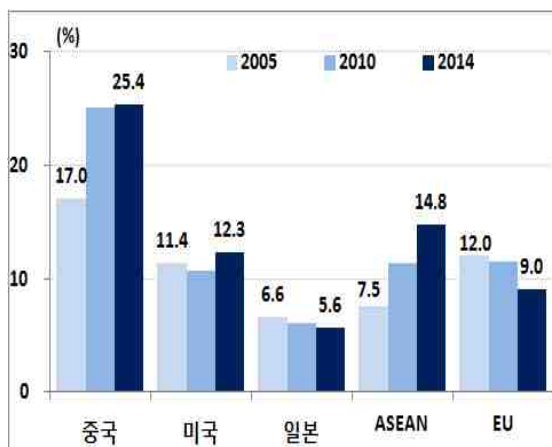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연이 우려되며, FTA 교역국 중 대EU 수출이 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2%대에 머무는 가운데, 2015년 들어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진세가 본격화
 -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3%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1%, 2014년 2.3%로 부진세가 지속
 - 특히 2015년 들어서는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1월~4월까지 수출증가율이 -4.3%를 기록
 - 수출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GDP성장기여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내 경제 회복세 지연 우려
 - 주요 수출지역 중 EU 지역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EU 수출 부진이 심화되어,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비중 역시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늘어났지만, 대EU 수출비중은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축소
 - 한미 FTA 발효 이전 2005년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은 11.4%였으나, FTA 발효 이후 2014년 현재 12.3%를 차지
 - 반면 대EU 수출 비중은 2005년 12.0%에 달했으나, 2014년 9.0%로 축소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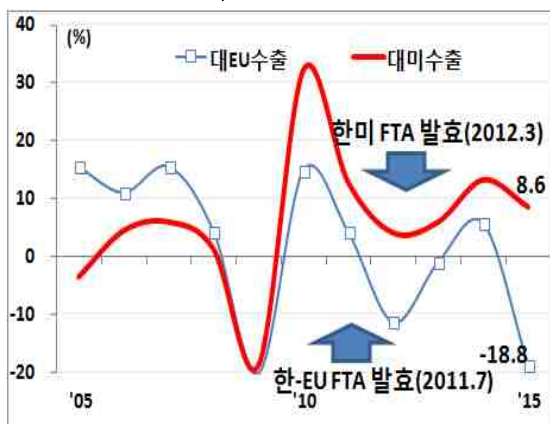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무역협회.

- 특히 한-EU FTA와 한미 FTA는 수출규모, FTA 발효 시기 및 양허 수준 등에서 매우 유사하나,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한-EU FTA는 2011년 7월,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FTA 양허수준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
 -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미국 10.1%, EU 10.0%로 비중도 거의 비슷한 수준
- FTA 발효 이후 대EU 수출은 부진한 반면 대미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여 한-EU FTA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회의론 제기
 - 대EU 수출 : FTA 발효 이후 2012년 -11.4%, 2013년 -1.0%로 부진. 2014년 5.7%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2015년 4월까지 -18.8%로 부진세 심화
 - 대미 수출 : FTA 발효 이후 2012년 4.1%, 2013년 6.0%, 2014년 13.3%로 호조세. 2015년 4월까지 총수출 증가율(-4.3%)을 상회하는 8.6%로 호조세
 - 대EU 무역수지 : FTA 발효 이후 100억달러를 상회하던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이후 적자 확대 지속
 - 대미 무역수지 : 수출 호조에 힘입어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250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 본고에서는 FTA를 전후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성과를 경쟁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기존의 FTA의 성과 분석은 관세혜택 품목의 수출 증가에만 한정되어 있고,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과 점유율 확대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부재

<우리나라 대미, 대EU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관세청.

<우리나라 대미, 대EU 수출입 및 무역수지>

구 분	대EU수출		대미수출	
	발효 이전 ('09~'11)	발효 이후 ('12~'14)	발효 이전 ('09~'11)	발효 이후 ('12~'14)
수출 증가율	-0.4	-2.2	8.8	7.8
수입 증가율	7.7	9.6	8.4	0.7
무역수지	124.9	-63.7	98.9	202.4

자료 : 무역협회, 관세청.

2. 한미, 한EU FTA 비교 분석

1) 분석 방법

- EU와 미국 시장에서 FTA 발효를 전후로 수출경쟁력과 수출시장 점유율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 수출경쟁력 변화 : FTA 발효 전후 EU와 미국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의 변화를 '산업별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CA지수는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국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수임 (별첨 참고)
 - CA지수가 1을 상회하면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비교우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0.1보다 크고 1이하인 경우 비교우위가 중간정도, 0.1이하일 때는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구분
 - 시장점유율 변화 : FTA 발효 전후 EU와 미국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수입침투율(IPR)이란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로서,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 (별첨 참고)
 - 한·중·일 비교 : 발효 전후(2009~2011년 , 2012~2014년) CA지수와 수입침투율을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FTA 발효 이후 성과를 비교 분석

< 한-EU, 한미 FTA 성과 비교를 위한 분석틀 >

구 분		분석 대상
분석 대상국		EU, 미국
분석 기간		FTA 발효 이전(2009~2011년)과 발효 이후(2012~2014년) 각각 3년씩 비교 (단, 시장점유율 분석은 EU의 제조업생산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2010~2011년, 2012~2013년 2년씩 비교)
분석항목	수출경쟁력 변화	CA지수 변화 및 한·중·일 비교
	시장점유율 변화	수입침투율 변화 및 한·중·일 비교

2) EU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

- (EU시장 경쟁력) 한-EU FTA 발효 이후 수출주력품목의 경쟁력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對中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對日 경쟁력은 소폭 약화
- 수출경쟁력 전반 : EU시장에서 다수의 수출 주력 품목이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냄
 - 8개 수출주력품목 중 석유화학, 철강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의 CA 지수가 1을 상회하여 EU 시장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의 비교우위가 높음
 - 또한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의 5개 품목 CA지수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나타냄
- 한·중·일 비교 :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對日 경쟁열위 품목수는 소폭 증가, 對中 경쟁력은 상대적 우위를 유지
 - FTA 발효 이전 EU 시장내 중국대비 열위 품목은 철강제품, 기계류, IT 3개 품목, 對日 열위 품목은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 3개 품목임
 - FTA 발효 이후 對日 열위 품목은 4개로 확대(철강제품은 경쟁우위 전환, IT와 정밀기기는 경쟁열위 전환), 對中 우위 품목은 기존 5개가 유지되는 가운데 CA지수가 중국에 비해 개선된 품목도 다수를 차지
 - 한편, 중국 IT 제품의 CA지수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고, 한국은 3국 중에 IT 제품 CA지수가 가장 낮고, FTA 발효 이전보다 CA지수 하락

< FTA 발효 전후 EU 시장에서 한·중·일의 CA지수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석유화학	0.33	0.38	0.01	0.00	0.04	0.02
철강	1.18	1.38	0.32	0.40	0.25	0.22
철강제품	0.55	0.85	1.29	1.33	0.84	0.83
기계류	0.92	1.12	1.74	1.91	2.23	2.53
IT	1.91	1.76	2.57	2.73	1.90	1.96
자동차	1.53	2.15	0.18	0.20	2.39	2.17
조선	44.32	39.99	3.19	2.16	1.29	0.45
정밀기기	3.68	3.14	0.68	0.84	2.92	3.20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S 2단위 기준.

- (미국 시장 경쟁력)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수출주력품목의 경쟁력은 개선 양상을 보이거나, 對日 경쟁력은 약화
 - 수출경쟁력 전반 : 미국 시장에서 다수의 수출 주력 품목이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냄
 - 7개 주요 수출품목 중 CA지수가 1을 상회하는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IT, 자동차의 5개 품목이 미국 시장내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철강, 철강제품, 자동차, 조선 4개 품목은 FTA 발효 이후 CA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냄
 - 한·중·일 비교 : 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對中 경쟁열위 품목수는 증가, 일본은 상대적 우위를 유지
 - FTA 발효 이전 미국 시장내 對中 열위 품목은 철강제품 1개 품목이며, 對日 열위 품목은 철강제품, 자동차, 정밀기기 3개 품목임
 - FTA 발효 이후 중국대비 열위 품목은 3개로 증가(IT와 정밀기기 경쟁열위 전환)된 반면, 對日 우위 품목은 기존 5개를 유지하는 가운데 CA지수가 일본보다 개선된 품목도 다수를 차지
 - 한편, 중국의 IT 제품은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아진 반면, 한국과 일본은 FTA 발효 이전보다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한국의 CA지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FTA 발효 전후 미국 시장에서 한·중·일의 CA지수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석유화학	0.30	0.30	0.02	0.02	0.03	0.03
철강	2.01	2.25	0.30	0.38	0.92	0.99
철강제품	2.28	2.93	1.61	1.49	1.16	1.13
기계류	1.33	1.29	1.92	1.74	1.64	1.66
IT	2.20	1.42	1.65	1.72	1.03	0.93
자동차	2.42	2.66	0.28	0.27	3.76	3.30
조선	10.01	28.17	1.54	0.53	1.42	1.53
정밀기기	0.81	0.59	0.75	0.76	1.84	1.66

자료 : 한국무역협회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S 2단위 기준.

3) EU와 미국 시장 점유율 변화

○ (시장점유율 전반) : 한국의 대EU 시장점유율은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FTA 발효 이후 전반적인 개선세를 나타냄

- 對EU 시장 : 중국과 일본의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FTA 발효 이후 기존의 수입침투율 수준을 유지하였음

· 한국의 EU 시장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 2010~2011년 0.7%~0.8%였고, FTA 발효 이후 2011~2012년 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반면 중국의 경우 FTA 발효 이전 6.0%에서 하락하여 2011, 2012년 5.8%, 2013년 5.6%로 하락세 지속됨

· 일본의 경우도 수입침투율은 2010년 1.4%에서 2013년 1.1%로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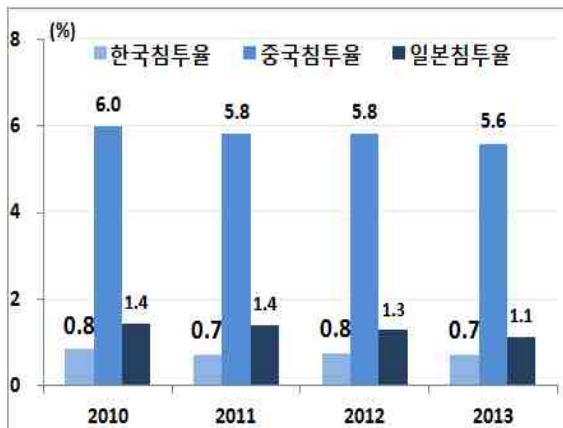
- 對미국시장 : 한국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침투율이 FTA 발효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한국의 미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2010~2011년) 0.9% 수준에서 2012~2013년 0.9~1.0% 수준으로 소폭 상승

· 한편 중국의 경우 FTA 발효 이전 6.5%~6.7%에서 FTA 발효 이후 6.7%~6.8%로 역시 수입침투율이 소폭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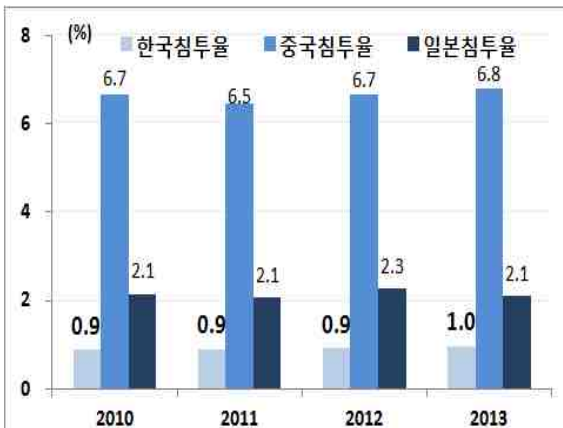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도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 0.9%에서 FTA 발효 이후 1.0%로 소폭 상승

<한·중·일의 對EU시장 수입침투율 추이>



자료 : Eurostat, Kostat, UN comtrade 자료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한·중·일의 대미국시장 수입침투율 추이>



자료 : BEA, Kostat, UN comtrade 자료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對EU 시장 점유율)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한국제조업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축소
 - 산업별 :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대EU 시장 수입침투율은 IT와 전기기계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상승세
 - 한-EU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수입침투율이 상승한 산업은 음식료,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7개 부문임
 - 이중 정밀기기의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 4.54%에서 FTA 발효이후 5.22%로 가장 큰 폭(0.68%p)의 상승세를 보임
 - 한중일 비교 :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
 - 한-EU FTA 발효 이후 중국과 수입침투율 격차가 개선된 품목은 음식료,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전기기계, 수송기계의 6개 품목임
 - 한-EU FTA 발효 이후 일본과 수입침투율 격차가 개선된 품목은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6개 품목임
 - 다만, IT의 경우 중국 수입침투율이 가장 높고,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이 가장 크게 상승. 한국은 3국 중 IT 수입침투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이 하락

< 한 · 중 · 일 對EU시장 수입침투율 >

(%)

	한국		중국		일본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음식료	0.01	0.02	0.49	0.46	0.02	0.02
경공업	0.19	0.21	10.81	10.46	0.17	0.17
석유화학	0.43	0.48	1.47	1.48	0.84	0.70
금속·비금속	0.30	0.35	2.57	2.54	0.38	0.36
IT	5.54	4.95	50.83	56.69	7.93	7.45
정밀기기	4.54	5.22	11.53	14.15	11.10	10.91
전기기계	0.40	0.30	5.86	5.72	0.31	0.28
일반기계	1.16	1.25	5.88	6.69	4.89	4.67
수송기계	1.75	1.78	1.55	1.04	2.12	1.78

자료 : Eurostat, Kostat, UN comtrade 자료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對미국 시장점유율)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일본과의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
- 산업별로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경공업, IT, 전기기계를 제외한 부문에서 상승세를 나타냄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에서 수입침투율이 상승한 산업은 음식료,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일반기계, 수송기계 5개 부문임
 - 이중 수송기계의 수입침투율은 FTA 발효 이전 1.39%에서 FTA 발효 이후 1.63%로 가장 큰 폭(0.39%p)의 상승세를 나타냄
- 한미 FTA 발효 이후 일본과 수입침투율 격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됨
 - 한미 FTA 발효 이후 이전보다 중국과 수입침투율 격차가 개선된 품목은 경공업, 금속·비금속, 수송기계의 3개 품목에 불과
 - 한미 FTA 발효 이후 이전보다 일본과 수입침투율 격차가 개선된 품목은 음식료,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일반기계, 수송기계 5개 품목임
 - 다만, IT의 경우 중국 수입침투율이 가장 높고,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이 가장 크게 상승. 한국은 3국 중 IT 수입침투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이 하락

< 한 · 중 · 일 對미국시장 수입침투율 >

(%)

	한국		중국		일본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전	발효 이후
음식료	0.06	0.07	0.68	0.70	0.08	0.08
경공업	0.34	0.34	13.21	13.18	0.23	0.21
석유화학	0.35	0.38	0.87	1.00	0.64	0.61
금속·비금속	0.61	0.78	3.40	3.48	0.89	0.96
IT	3.50	2.82	27.67	31.07	3.97	3.76
전기기계	1.46	1.34	11.62	12.44	0.83	0.96
일반기계	1.75	1.84	6.34	6.70	7.21	7.19
수송기계	1.39	1.63	0.90	0.91	5.35	5.29

자료 : BEA, Kostat, UN comtrade 자료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정밀기기 부문은 제외.

4) 종합 평가

- FTA 발효 이후 EU와 미국 시장에서 주력품목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부진한 측면이 있다.
-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과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수출경쟁력 부문에서 한-EU FTA는 對中 경쟁력이, 한미 FTA는 對日 경쟁력이 각각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시장점유율 부문에서는 EU시장에서는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과의 격차는 축소,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
- 따라서 한-EU FTA의 성과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경쟁력 부문에서는 대등하며,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월한 것으로 평가
 - 다만, 대EU 수출과 무역수지 실적의 부진세가 지속되는 것은 EU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 및 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판단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성과 종합 비교>

구 분	분석 대상	
	EU시장(한-EU FTA)	미국시장(한미 FTA)
수출경쟁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전반적으로 개선 - 對中 경쟁력 개선 - 對日 경쟁력 소폭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쟁력 전반적으로 개선 - 對中 경쟁력 약화 - 對日 경쟁력 개선
시장점유율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 전반적으로 개선 - 일본,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모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 전반적으로 개선 -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 축소 -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EU 시장에서 對日 경쟁력, 미국 시장에서 對中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IT 부문에서의 수출 대응책과 가격경쟁력 제고 대책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첫째,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과 시장점유율 개선세가 더욱 빨라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시장점유율 개선 효과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도록 FTA 활용도 제고 및 FTA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FTA 활용에 있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 및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FTA 활용도를 극대화

둘째, EU 시장에서 주력품목의 對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지속적인 R&D 투자와 브랜드가치 제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특히 對日 경쟁력이 약화된 철강제품, 기계류, 자동차, 정밀기기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등을 통해 對日 제품경쟁력을 제고
 - 또한 EU 지역에서의 한국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한류홍보관 등의 건립을 통한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

셋째, 미국 시장에서는 주력품목의 對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진출이 확대되는데 대비하여, 제품차별화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등을 추진
 - 미국 시장에서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부문에 있어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발전 방향과 경쟁력, 주력 제품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

넷째, IT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비해 크게 부진한 만큼, IT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FTA 발효에도 EU와 미국 시장 모두 IT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의 기술발전 방향과 제품군 등을 면밀하게 분석·과약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 중장기적 기술역량 축적과 기술과급효과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활용, 국제간·학제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

다섯째, 엔저 지속 등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생산 공정 및 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HRI**

【 별첨 1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CA지수)

- CA지수는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국 내에서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수임
 - CA지수는 발라사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지수)¹⁾를 변형시킨 것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비교우위지수로 활용
 - CA지수는 $\frac{(RX_i/RX)}{(RE_i/RE)}$ 로 산출되며 RX_i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i품목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국의 i품목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수입액을 나타냄
 - CA지수가 클수록 특정국가 내에서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
- HS코드 기준으로 수출 주력품목 8대 분야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의 CA지수를 산출하여 상호 경쟁력을 분석하였음
 - 이들 8대 품목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총수출의 77.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군임

< 8대 수출 주력 품목의 산업코드 및 품목명 >

산업	HS 코드	품목명	산업	HS 코드	품목명
석유 화학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왁스	IT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철강	72	철강	자동차	87	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철강 제품	73	철강의 제품	조선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기계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정밀 기기	90	광학기, 사진영화용기, 측정·검사기, 정밀기, 의 료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1)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을 의미함.

【 별첨 2 】 수입침투율

○ EU와 미국의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통계로 연계한 9개 분류 품목을 바탕으로 FTA 발효 전후 한·중·일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비교

-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이란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수입이 늘거나 내수규모가 줄면 수입침투율은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수입침투율은 하락함

· 각국의 EU 또는 미국 시장의 수입침투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한중일 제품의 EU, 미국시장 수입침투율(IPR)} = \frac{X}{P+I-E} \times 100$$

※ P는 품목별 생산총액

I는 품목별 수입총액

E는 품목별 수출총액

X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 EU와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일 제품 수입침투율 분석을 위해 EU와 미국의 제조업 생산 및 무역 통계를 활용

< EU, 미국 시장에서 한·중·일수입침투율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내용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와 미국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통계를 연계하여 분석 - 총 9개 카테고리로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통계를 연계 - 9개 카테고리는 음식료,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IT, 정밀기기, 전기기계, 일반기계, 수송기계로 분류
제조업 생산액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EU, 미국의 제조업 생산통계 분류 - EU : Eurostat의 Prodcom code를 기준으로 분류 - 미국 : BEA의 Gross national Product 통계를 이용
무역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comtrade의 수출입 데이터(SITC rev.3 기준)를 연계 - 제조업 생산액과의 연계를 위해 9개 카테고리(총 34개 품목)로 분류 - 2009~2014년 EU, 미국의 對세계 수출입, 한·중·일의 수입 데이터를 활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별첨 3】 수입침투율 산출을 위한 제조업 산업통계 및 무역통계 연계표

< EU 수입침투율 산출을 위한 제조업 산업통계 및 무역통계 연계표 >

구분		EU Prodcom code	무역통계 분류 (SITC rev.3)
음식료		10~12	0,1
경공업	섬유 제품	13	65
	의류 제품	14	84
	신발, 가죽 제품	15	61,85
	나무 및 종이 제품	16~17	63,64
	인쇄출판	18	892
석유 화학	석유, 석탄 제품	20	3
	화학제품		5(58제외)
	플라스틱, 고무 제품	22	58,62
금속 비금속	비금속광물 제품	23	66
	철강 및 금속 제품	24~25	67~69
IT	컴퓨터 및 사무기기	261~264	75
	반도체 및 전자부품		772,776,778
	영상음향통신기기		76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265~269	774
	전문 과학 통제구및장치		87
	사진, 광학, 시계		88
전기기계	전력기기 및 부품	27	771
	배전용 장비		773
	가정용 전기 장비 등		775
일반기계	일반 목적용 기계	28	71,74
	특수 목적용 기계		72,73
수송기계	자동차	29,30	78(785제외)
	기타 수송기계		79
기타 제조업 제품 (위생용품, 가구류, 여행용품, 미분류 제조업 등)		31~39	785,81~83, 89(892제외),9

자료 : Eurostat, KOSTAT, UN comtrade,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Prodcom code는 7자리 기준이며, 비교 분석을 위해 2단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음.
 2) 미국의 경우 BEA에서 제공되는 Gross national Product 자료를 이용. 19가지로 구성된 제조업 생산항목을 9가지 카테고리에 매칭하였음(다만, 정밀기기는 원자료상 구분되어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